

“IMF 시절 다룬 ‘소주전쟁’ 배우들은 ‘연기전쟁’ 했죠”

영화 ‘소주전쟁’ 이제훈

‘진로그룹 인수전’ 모티브로 제작
유동성 위기의 소주회사 이야기 담아
“당시 아버지 일용노동자로 일해 더 공감
유해진과 케미 환상...또 연기하고 싶어”

“제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당시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영화 ‘소주전쟁’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사진)이 최근 서울 삼정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점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소주전쟁’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주를 만드는 회사 국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당시 있었던 진로그룹 인수전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제훈은 국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글로벌 투자사 솔킨의 인범 역을 연기한다. 그는 어린 시절 IMF 외환위기 여파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이제훈은 “IMF 시절은 중학생부터 대학 다니던 때로 기억한다. 자영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IMF 위기 이후 일용노동자로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 힘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라며 “화장 시절 얘기여서 그런지 (영화가) 더 실제처럼 느껴졌다”고 돌아봤다.

영화에는 국보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국보그룹과 솔킨이 대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솔킨은 ‘선진 금융 기법’을 통해 국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고 국보그룹은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간다’며 국민에 호소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음모와 속임수, 검은 거래가 난무하고 각 인물의 민낯이 드러난다. 영화의 가제는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 해저드’였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보이고 싶었던 건 위기를 겪고 난 다음

대한민국에 도덕적 해이가 더 팽배해졌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영화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국보의 재무이사 종록(유해진 분)과 인범의 대비를 통해 관객에게 생각할 지점도 던진다. 종록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된다’며 회사를 자기 인생과 동일시하는 반면, 인범은 ‘일은 일이고 인생은 인생’이라며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제훈은 “삶과 일에 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영화는 최윤진 감독과 제작사가 대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작사 더애프 측은 최 감독의 각본이 원작자의 시나리오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화 크레딧에 최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했다. 최 감독은 시나리오를 탈취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최 감독의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소주전쟁’의 제작보고회, 시사회 등의 일정은 감독 없이 배우들만으로 진행됐다.

이제훈은 이에 관해 “함께 작업하다가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중간에 그만두거나 새로 합류하는 일은 작품마다 있다”며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와 닿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객에게 짐을 없이 온전하게 이 영화를 선보이려는 목표 의식이 뚜렷했다.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의견을 많이 냈다”며 “극장에서 보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작품에 유독 애착이 많이 간다”고 했다.

이제훈은 함께한 배우 유해진에 대한 애정도 보였다. 그는 이번 작품만으로는 아쉽다며 유해진과 또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봤던 시기가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로 (당시 영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해진 선배가 항상 계셨다”며 “(‘소주전쟁’에서) 선배님이 자유롭게 연기하며 인물의 생생함을 표현해줘서 두 인물(종록과 인범)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세븐틴 정규 5집 초동 252만장 을 K팝 앨범 중 첫주 판매 최고

그룹 세븐틴(사진)의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HAPPY BURSTDAY)가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일주일간 252만1208장이 판매됐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26일 발매된 이 앨범은 이로써 올해 나온 K팝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피 버스트데이’는 발매 당일 더블 밀리언셀러(200만장)를 기록해 일찌감치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타이틀곡 ‘선다’(THUNDER)도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톱 100’ 차트 1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이날 나영석 PD가 연출한 새 예능 프로그램 ‘나나민박 위드(with) 세븐틴’을 공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대선 개표’ 승자는 MBC

지상파·케이블, AI·그래픽 기술 등 겨뤄
시청률 14.5%...KBS·SBS는 한자릿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3일 개표방송·뉴스 가운데 가장 많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채널은 MBC였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특집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14.5%(전국 기준)로, 같은 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중편), 케이블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았다.

MBC 개표방송 4부와 5부, 2부 시청률은 각각 14.1%, 13.3%, 12.8%를 기록해 2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KBS의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2부 시청률이 5.2%였으며, SBS 개표방송인 ‘2025 국민의 선택’ 3부가 3.7%로 집계됐다.

중편 가운데서는 JTBC ‘대선 개표방송 2025 우리의 선택 위(WE)대한민국’ 1부가 1.6%로 가장 높았고, 채널A ‘뉴스A’(1.6%)와 TV조선 ‘결정 2025’(1.6%) 등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각 방송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미디어 기술을 도입해 볼거리로 가득한 개표 방송을 진행했다.

MBC 개표방송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8시경 순간 최고 시청률이 20.6%에 달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로제, 빌보드 32주째 차트인

싱글 22위...BTS 진 ‘에코’, 앨범 차트 122위

결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앨범 차트에서 장기간 흥행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전주보다 6계단 상승한 22위로 32주 연속 진입했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핫 100’에 처음 진입한 뒤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K팝 여성 가수의 ‘핫 100’ 최장기 진입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이 곡이 수록된 로제의 1집 ‘로지’(rosie)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68위에 자리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의 두 번째 미니앨범 ‘에코’(Echo)는 같은 차트에서 12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